

## 철학사

### 44 조지 버클리의 이상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조지 버클리와 그의 이상주의, 특히 형이상학적 의미의 이상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신의 본질, 즉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전반적인 철학적 기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성공회 주교였던 그는 버뮤다 제도에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자금 문제와 그곳에 천연 수원지가 없어 빗물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정착했고, 오늘날에도 그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버클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어를 통해 버클리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의 채소밭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타르물을 이용해 만병통치약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당시 의학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온갖 사회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활동가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가 물질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O 위즈덤이라는 사람이 『버클리 철학의 무의식적 기원』이라는 책에서 조지 버클리에 대한 사후 정신분석을 시도했는데, 그는 버클리의 타르물 실험과 이상주의적 형이상학을 육체적 고통에 대한 만병통치약을 찾으려는 똑같이 기만적인 시도로 본다. 즉, 약물로 고통을 치료하고 물질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버클리가 더러움과 배설물에 대한 병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사후 정신분석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할 겁니다. 사실 버클리는 당대에 사상의 세계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였으니까요.

토머스 홉스의 종교적으로 온건한 유물론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무신론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이신론은 뉴턴 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고유한 역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면, 자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내재하는 신은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당시 기독교의 주요 대안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학식 있는 주교의 관심사였고, 그의 계획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실, 타르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지 버클리 존 로크의 인식론을 면밀히 검토했다. 존 로크의 인식론 말이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알 겁니다. 마음은 자기 자신, 마음이 생각하는 유일한 대상인 관념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말이죠.

감각과 반사의 개념. 감각에 관한 개념은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을 포함한다. 일차적 속성은 물질 속에서 어떤 객관적 실체를 지닌다.

로크에 따르면, 그 기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관념, 적어도 그중 일부는 표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표상론적 인식론이다.

물질적 대상의 표상. 이 도식을 보면 버클리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간단 해집니다. 즉,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관념을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인지적 장벽을 뚫고 마음 밖의 영역, 즉 정신 외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로크는 인과 추론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내 감각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버클리는 던집니다. 따라서 로크가 물질성에 대해 실재론자였다면, 버클리는 오늘날 우리가 반실재론자라고 부를 만한 인물입니다. 물질의 독립적인 실재를 부정한 것이죠.

물론 그것은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상주의자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비물질적이라고 말한다면,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주의는 물질에 대한 일종의 반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실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견해들을 접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현상론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현상론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대상과 같은 사물의 겉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 물질이 존재 하는지 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상주의. 이상주의는 현상주의의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상주의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관념, 즉 현상뿐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현상론입니다.

하지만 관념론 외에도 다른 종류의 현상론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일종의 현상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독일 관념론 전체가 특징적으로 현상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꽃피운 관념론 운동을 생각해 보면, 사실 고대 철학자들인 플로티누스도 현상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관념의 세계는 있지만, 발산의 사슬, 존재의 위계에서 더 아래로 내려 갈수록 비존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는 물질이라는 실재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존재입니다 .

그래서 플라톤 전통 역시 잠재적으로 일종의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확실히 현상주의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버클리 프로젝트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유물론의 대두, 그리고 그와 함께 이신론과 무신론의 대두를 부추긴 것은, 의도치 않게 인간의 손에 의해 뉴턴의 물리학에 있습니다. 뉴턴이 당대에 체계화한 기계론적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독립적인 실재, 즉 물질, 힘, 인과력, 균일한 절대 공간과 균일한 절대 시간의 실재입니다. 이것들이 뉴턴 물리학, 즉 기계론적 물리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뉴턴은 이 네 가지가 모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버클리는 이 네 가지가 모두 객관적으로 비실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만약 유물론자의 발밑에서 물질, 물리력, 공간, 시간을 떼어낼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버클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발밑에서 발판을 빼앗아 유물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게 그의 전략입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과학 혁명과 함께 등장한 기계론적 과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베이컨 시대부터 방법론적으로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홉스, 데카르트, 스피노자가 그 위에 세운 철학적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프니츠는 뉴턴적 의미의 물질이 궁극적인 실재, 근본적인 물질, 기저 물질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기본적인 것들, 즉 그가 모나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힘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였습니다. 그는 일종의 실재론을 제안했지만, 물질에 대한 실재론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 즉 기계론적 물리학이 아닌 에너지 물리학에 대한 실재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버클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분명히 로크의 인식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국 경험주의의 역사를 로크에서 버클리로, 그리고 데이비드 힐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방법론은 철저히 경험주의적일 것입니다.

로크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경험을 구성하는 이념, 즉 단순한 이념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크와 데카르트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적 능력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주장한다면, 버클리는 증거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로크도 어느 정도는 증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비례하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버클리와 로크의 차이점은 버클리는 물질, 물리력,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 안 되겠어요? 자, 이제 그의 프로젝트에서 그의 주장이 근거하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라이언.

이건 좀 더 전에 그린 거예요. 칸트식 X, 또는 칸트가 적힌 X를 그렸을 때요. 네.

그리고 합리주의, 또는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는 영국 경험주의의 한쪽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합리주의가 독일 관념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주의는 현상주의로 이어졌죠 . 네. 방금 관념론이 현상주의에 속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에서 시작하여 1800년경 칸트가 데이비드 흄의 사상까지 수용해야 했던 시점 까지 , 대륙 합리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칸트는 데이비드 흄의 저서를 읽고 합리주의적 잠에서 깨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베이컨, 홉스, 로크, 버클리, 흄. 방금 제가,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경험주의적 경향이 19세기 현상주의에서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언급한 인물들은 프랑스 철학자 오귀스트 칸트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 20세기의 논리 실증주의도 있죠. 네, 그들은 모두 영국의 경험주의 전통을 계승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9세기 독일 사상, 그리고 프랑스 사상에서도 대륙 합리주의의 뿌리에서 형이상학적 이상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 역시 이상주의자이지만 경험주의 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른 인식론적 전통을 가진 이상주의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고, 경험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활용하는 데 충분히 창의적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점은 현상주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겁니까? 경험적 기반의 현상주의와 합리주의적 기반의 현상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궁금증에 답하자면, 어떻게 합리주의자들이 이상주의자가 되는 걸까요? 음, 합리주의는 지적 자원 , 즉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선천적 지식, 선형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성의 시대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강조점은 지식이 아니라 창조적 자기표현을 위한 타고난 자원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상주의는 계몽주의적 이상주의보다는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인간 정신 안에 내재된 활동, 행동, 그리고 사고의 원천, 즉 내면의 실체를 인식하는 데 기반을 둔 이상주의 말입니다.

아시겠죠? 경험주의자였던 버클리의 경우, 그의 이상주의는 인간 정신의 창조적 자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이 특정 종류의 감각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앞서나간 얘기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이유로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어떤 입장에 대한 논증 방식이 항상 하나뿐인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논증 방식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제시될 수도 있죠.

네. 공화주의를 예로 들어보죠. 공화주의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온갖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게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르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출발점이 다르면 결론도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비드, 제가 묻고 싶었던 건, 현상론이란 우리가, 즉 마음이 오직 현상만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현상만 존재하고 실재는 없다는 믿음인가요? 버클리의 이상주의적 입장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과 정신 상태, 관념뿐이다. 그렇다. 현상론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현상론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현상뿐이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건 존 스튜어트 밀의 특징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가 유물론을 반증하면 이원론에 대한 더 나은 논증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물질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감각 관념은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관념은 정신적인 것이므로 정신적인 원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원인은 결과와 같아야 한다. 만약 내 마음이 감각 관념의 원인이 아니라면, 다른 마음이 감각 관념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대상을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감각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감각 관념을 부여하는 어떤 지고한 마음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인과적 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항상 이런 일을 해야 하므로, 이신론보다는 유신론에 가깝다는 거죠. 뭐였더라? 아, 맞다, 꽤 기발한 논증이었어.

영리하시네요. 아시다시피, 특히 101 같은 입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버클리에서 적응 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누군가가 물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당신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말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버클리는 제 손이 환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수필가 존슨이 학식 있는 주교를 반박하려다가 돌맹이를 차고 발가락을 부여잡고 가면서 “그 고통은 진짜였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에 버클리는 “네, 우리가 ‘진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자발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비자발적인 고통의 개념은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서 이는 어리석은 입장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고려된 진지한 입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유대-기독교 전통뿐 아니라 동양 전통의 종교 사상가들은 신의 궁극적 실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형이상학적 이상주의를 종종 채택해 왔습니다.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말이죠. 사실 스피노자가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가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말해주길 바라지 않았나요? 범신론자라면 이상주의자라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는 유물론자에 더 가까워서 당신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와 유신론, 범신론, 그리고 그러한 전통에 속한 종교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 사상에는 기독교 이상주의, 특히 플라톤주의적 이상주의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17세기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주장이 근거하는 버클리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나머지요? 음,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심하세요. 그는 로크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로크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존 로크의 추상적 관념론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크의 추상적 관념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언어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버클리에서 나온 자료의 서두 부분에서 그는 언어와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로크의 개념주의적 입장에 반대하여 명목주의적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의 요점은 언어가 심각하게 남용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명사와 이름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명사가 있다면, 그것들은 일반적인 사물을 지칭해야 합니다. 만약 실재하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보편자가 없다면, 일반 명사, 즉 보통 명사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들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념들을 지칭합니다. 개념주의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버클리는 그것이 오관이라고 확신한다. 언어는 명명 외에도 많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단어가 명명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언어가 지시적이고, 가리키고, 의미를 전달하고,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로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어와 관념 사이에 반드시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는 대개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물을 지칭하는 것 외에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유하고, 비난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버클리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비트겐슈타인이나, 1950년대와 60년대에 '옥스퍼드 일상 언어 철학'이라고 불렸던 철학을 접해본 적이 있다면 말이죠.

그 당시에는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실증주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지의 철학자들은 모든 언어에는 지시, 즉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언어로 하는 다른 온갖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그것들을 다른 언어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보세요, 다른 언어 게임들이요. 그렇죠.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온갖 사회 활동을 해요. 네. 언어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죠.

버클리는 그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단어가 반드시 외부의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용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이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아니요.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예시와 논증 중 일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운동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색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확장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확장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보죠. 왜냐하면 확장은 기본적인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크기, 모양, 밀도 등. 이러한 속성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공간적 확장, 즉 공간 점유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공간적 확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간적 확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버클리가 묻습니다.

아니요, 특정한 모양, 특정한 크기, 특정한 면적에 대한 개념은 있죠. 하지만 확장성은요? 색깔은요? 그건 부차적인 속성이예요. 색깔이요.

색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있으신가요? 아뇨, 없으세요. 제 셔츠의 파란색 계열만 아시겠죠. 오늘 일부러 파란 셔츠를 입었거든요.

내 넥타이의 파란색 색깔. 내 눈동자의 파란색 색깔. 등등.

하지만 파란색이라는 색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단어는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되는 모든 색조와 명암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자, 이제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어라.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추상적이라? 글썄, 로크조차도 몰랐다. 그는 "물질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다"라고 말했다 .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특정한 사과, 특정한 나무, 특정한 돌, 특정한 의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특정한 공간적 관계, 거리, 점유 면적 등에 대해서는 알지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추상적인 권력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로크가 그에 대해 길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뇨, 당신은 특정한 감각적, 경험적 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추상적인 권력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군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근육에 느껴지는 긴장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힘과 에너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때로는 그 주제에 대한 그의 수사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추상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인지 한 특정한 사물의 관념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것들을 조합하고 나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가 두 개인 사람, 사람의 상반신에 말의 몸통이 붙어 있는 모습, 나비 날개를 가진 요정 기린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 눈, 코를 각각 몸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특정한 모양과 색깔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애써 생각해봐도, 묘사된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릴 수는 없다.

저는 움직이는 물체 자체와 분리하여 움직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빠르든 느리든,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특정한 부분이나 속성을 다른 것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때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속성들을 추상화하여 일반적인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저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철학자가 인용한 문단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버클리라는 "당신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직접 말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떤 종류의 주장인가? 그건 경험적 주장이다. 그는 하필이면 로크에게, 그가 충분히 경험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로크에게 추상적 관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주의자인 로크가 반박하고 싶다면, 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경험적인 대답뿐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경험 과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것.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으니, 잠시 멈춰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단어를 이름이 아니라 상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기호들이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언어를 이루는 기호들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언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틀 안에서, 그 언어로 생각하는 것은 특정한 사물로부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

수학에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굳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정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 수학의 언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핵심은 언어 를 단순히 지시 도구가 아니라 기호로 보는 것입니다.

언어는 추상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상징 체계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 이후 다양한 문학 이론 등에서 계승되어 왔다.

좋습니다. 그럼 비클러의 명목론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주교는 명목론에서 정의, 법, 윤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그의 반론에 대한 답변을 살펴볼 때까지는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게 좋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는 윤리학에 관한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가 주교였다고 말씀하셨죠.

음, 주교들이 항상 윤리에 관한 논문을 쓰는 건 아니죠. 그들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어찌면 질문은 그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어떻게 조언했는가, 명목론자는 윤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게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윌리엄 오브 오컴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윤리에 대해 무엇을 했습니까? 토마스 홉스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윤리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명목론자였던 루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윤리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명목론 전통 전체와 일부 개념론자들, 그리고 칼뱅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이성은 결과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는 형이상학적 기반을 둔 윤리, 즉 자연법 윤리를 내세운 중세 윤리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종합이 무너지면서 공리주의와 결과주의 윤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신성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버클리 대학에 그런 내용이 명시된 자료는 없지만, 그가 명목론 전통에 상당히 정통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명목론은 17세기와 18세기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도 그 전통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케임브리지 이상주의가 버클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버클리에 케임브리지 이상주의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도덕적 직관과 더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떤 도덕적 진리에 대한 즉각적인 정신적 자각 같은 것 말이다.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은 선천적 관념, 즉 선천적 도덕 관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천적 도덕 관념은 버클리의 경험주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개념 입니다 . 저는 버클리에서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좀 더 직접적으로, 그의 유물론에 대한 반박 주장은 무엇이냐고 물어봅시다. 그의 유물론에 대한 반박 주장 말이예요 .

그리고 여기서 그의 관심은 관념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주의라고 알려지게 된 입장을 주장합니다. 정신주의.

오직 마음과 그 안의 생각만이 존재한다는 견해. 오직 마음과 그 안의 생각. 다시 말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오직 마음과 그 생각만이 존재한다. 아, 그리고 그가 마음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다면, 그는 데카르트처럼 대답할 것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한다.” 라고 그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의 마음은 존재한다. 하지만 왜 마음과 그 관념들만 존재하는 걸까? 그에 대한 그의 논거는 무엇일까? 관념론과 관련된 그의 논거는 무엇일까? 음, 기본적으로 그의 논거는 관념이 지식을 구성하는 최초의 요소라면,

물론, 단순한 생각, 복합적인 생각, 긍정이나 부정으로 서로 연결된 생각들, 그것이 바로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생각이 정신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사건이라면, 원인이 결과와 같아야 하므로 생각에는 정신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쏟아지는 생각들은 내 마음이나 다른 마음, 또는 여러 마음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듯이, 그는 데카르트가 심신 이원론과 인과관계로 인해 스스로에게 제기했던 엄청난게 어려운 문제를 깨달았다. 어떻게 신체의 변화가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감각기관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이 뇌 활동을 유발하고, 어떻게 비물질적인 영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인과관계는 무엇일까? 버클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페니엘 글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우연주의'라는 전통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프랑수아 말라브로슈는 그 자체로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우연주의는 정신과 신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계 어떤 물리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반응하는 정신 상태를 일으키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행동을 일으키시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매력적인 입장이지만, 페니엘 글렌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클리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입장은 분명히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신이 원인이라는 생각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강력한 칼뱅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지니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그 누구도 그분에게 어떠한 인과적 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니엘 글렌이 효과가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의 모든 과정을 자연의 인과적 힘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과학의 함의를 피하기 위한 우연론자들의 시도였습니다. 이 무기력하고 끈적거리는 물질은 인과적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버클리논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존 로크의 관념론을 더 자세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집 247쪽부터 254쪽까지에서 그는 적어도 세 가지 논증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 논증이요.

하나는 인지되지 않은 것들,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 인지되지 않은 것들, 미지의 것들, 마치 로크의 미지의 기질과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미지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조 대상, 즉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즉 기본적인 성질을 지닌다고 여겨지는 그 기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언어는 경험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힘, 공간, 시간, 논증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논증은 조금 더 미묘한데, 로크의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에 대한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 버클리가 로크의 주장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은, 로크가 일차적 속성과 이차적 속성을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차적 속성 없이 일차적 속성을, 일차적 속성 없이 이차적 속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경험, 즉 상식적인 경험이나 버클리가 항상 상식에 호소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경험에서 나는 공간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색을 결코 인지하지 못한다. 작은 파란색 덩어리조차도 반드시 공간적 확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공간적 확장이 인지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색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냥 텅 빈 확장 프로그램은 말고. 텅 빈 확장 프로그램이 뭐야? 그냥 빈 공간이잖아.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차적 속성 없이는 일차적 속성이 존재할 수 없고, 일차적 속성 없이는 이차적 속성이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로크는 이차적 속성은 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차적 속성은 지각하는 자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관찰 조건에 따라 다소 상대적일 수 있다고 로크는 지적했다. 이차적 속성.

네, 귀를 깨끗이 씻었는지,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에 따라 다르죠. 안경을 썼을 때 잘 보이는지 여부에도 달려있고요. 저는 안경 없이 자면 알람시계 시간조차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지네요. 언젠가는 그냥 포기해야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 즉 이차적인 품질은 감각 기관의 상태와 여러 가지 관찰 조건에 따라 상대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2차적 특성과 관련된 1차적 특성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평선 너머에 있는 오래된 성채를 가리켰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크고 네모난 노르만 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 성 모양이 뭐지?"라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네모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니, 잘 봐. 이 거리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지? 음, 정확히 정사각형은 아니잖아. 작고 둥근 덩어리 같지. 그럼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모양으로 변할까? '변한다'는 점에 주목해 봐.

음, 그것은 거대하고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지평선 전체를 가득 채우죠. 당연히 기본적인 속성이나 부차적인 속성이나 상대적인 것이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1차적 속성과 2차적 속성 모두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독립적인 물질은 무엇이 남을 까요? 경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기질로서의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을 못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성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알람시계가 안 보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알람시계도 보이죠.

제가 어려움을 겪는 건 읽기입니다. 아니,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어떤 경험주의자도 우리가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버클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관념론에 대한 그의 결론은 정신주의이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과 관념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물리적 대상에 대한 일종의 현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순수 현상주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정신과 신의 실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과 정신이 실재한다면, 그는 완전히 현상주의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만 현상론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하는 현상론보다는 좀 더 약한 형태의 현상론이죠. 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가 5분 정도 느리게 가는 걸 발견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의 세 번째 근본 원칙인 유신론과 그에 대한 반론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니 다음 시간에 버클리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버클리 개요도 그때 제출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